

영암교육지원청, '미래&영암 역점과제2 수업혁신'

자발적 수업 성찰·수업나눔 활성화에 중점

유·초·중 182명의 교사, 연 2회 수업공개

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애)은 2021년 미래&영암(미래엔 영암) 실현을 위한 두 번째 역점과제로 '학생의 미래핵심역량을 키우는 수업혁신'을 선정하였으며, 올해에는 특히 학교 중심의 자발적 수업 성찰과 수업나눔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수업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업혁신을 위한 영암 관내 학교와 영암교육지원청의 노력은 그동안에도 꾸준히 이어져왔다.

2020년에는 관내 유치원교사 1명, 초등학교 교사 5명, 중학교 교사 2명이 전라남도 단위 수업선도교사로 활동하면서, 수업혁신과 수업나눔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학교 자체적으로도 유·초·중 182명의 교사가 연 2회 수업공개회를 실시하고, 수업나눔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맞춰 영암교육지

원청은 수업 컨설팅, 수업공개 컨설팅을 통해 학교를 지원하였다.

2021년에는 수업선도교사 제도가 사라짐에 따라 학교 중심의 수업혁신과 수업나눔 활동의 비중이 더욱 커졌으며, 이에 영암교육지원청에서는 새학년을 준비하기 위하여 2월 중에 실시되는 새학년 집중 준비기간에 블렌디드 러닝 수업, 학생 참여중심수업, 수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회복적 생활교육, 한글 교육 등을 주제로 교사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1년에는 정기적인 교사 연수와 협의의 자리를 마련하여 학교에서 수업혁신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할 방침이다.

군 단위의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도 수업나눔에 초점을 두고 운영하여, 학교 내 교

사들의 자율적 참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이 학생들의 미래핵심역량을 키우는 수업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학기당 1회 실시하였던 전문적학습공동체 성과나눔 형식에서 벗어나 학교 간 전문적학습공동체 네트워크를 학기 초에 조성하고 모임을 정기화하여,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수업나눔에 대한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사들은 학교에서 수업혁신과 수업나눔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교사들이 함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업나눔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좋은수업실천 수업공개 및 참관 계획에도 변화를 줄 계획이다.

각 과목별로 1명의 교사 정도가 근무하는 소규모 중학교가 많은 영암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규모 중학교 간 매칭을 통해 좋은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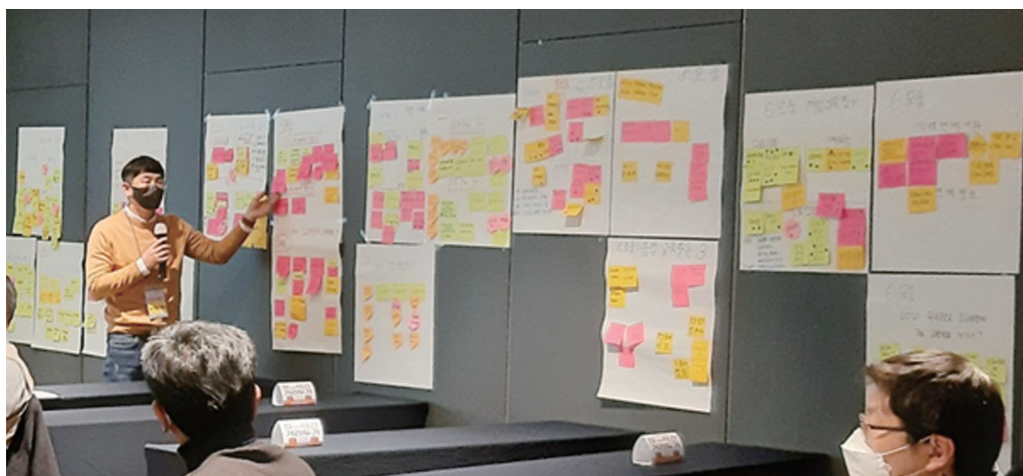


실천 수업공개회를 활성화하고, 좀 더 많은 교사들이 수업공개에 참여하여 수업나눔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영암교육지원청 김성애 교육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학력 저하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수업의 질 향

상 노력이 부단히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자발적 수업 성찰의 노력을 이어나가고, 학교 내에서 수업나눔의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청에서는 교사 연수 및 학교 간 네트워크 조성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고 조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전남교육청,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확대 운영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올해 고교학점제 일반고 연구·선도학교 30곳을 추가 지정해 지난해 20교에서 50교로 확대 운영한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20일부터 3일 간 여수 베네치아호텔에서 연구·선도학교 담당자 46명씩, 2기에 걸쳐 '2021.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계획단계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연구·선도학교로서 새 학년 학점제 준비사항을 공유하고 점검하는 기회를 갖고자 마련됐다.

먼저, '고교학점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저자인 정미라 늘푸른고 교사는 '고교학점제의 이해와 사례발표'를 통해 "지역의 산업을 담아내는 교육과정과 과목 개설이 매우 중요하다. 인천의 어떤 고등학교는 무역이 활발한 도시특성

을 고려해 다양한 외국어교과를 개설했다."는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김양훈 순천북성고 교사와 최대욱 능주고 교사가 '선도학교 운영 사례'를 발표했다. 교육과정 편성, 학교연합 공동교육과정 운영, 대학연계 과목개설, 학점제형 공간혁신, 월별 주요활동, 실제 운영에 고민되는 문제와 해결 사례 등을 소개하며 열띤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원탁토론에서는 '우리학교 학생들의 진로를 고려한 새로운 개설과목 찾기, 지역연계 기관(대학 등) 찾기, 지역연계 방안'에 대해 토론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순천 헬로비전 기관과 MOU체결로 '영상제작'의 이해'과목을 개설해 보고 싶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정환기자

신안군-목포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공동 개발·운영 등 적극 협력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문화예술 분야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25일 군청에서 국립목포대학교(총장 박민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협력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의 학예연구 관련 인력 발굴 및 양성을 위한 협력, 문화예술 인적·물적 지원과 정보의 교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공동 개발·운영 등을 적극 협력하고 모색할 방침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신안군민들에게 문화복지 차원에서 직접적인 문화예술의 향유기회를 증대하고 지역 예술전공 학생들에게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향후 양 기관은 관내 미술관·박물관 학예 및 운영 인력을 꾸준히 양성하고,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도슨트·교육강사로 활동을 꾸준히 유도할 계획이다.

박민서 목포대총장은 "지역의 부족한 문화

예술 인프라를 극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과 감성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신안군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해 적극 협력한다"고 말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문화예술분야에서 목포대가 지역발전을 견인한 열정을 높이 평가하며, 신안군과의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 실현을 기대한다"며 "향후 신안군과 목포대가 전남 서남권 문화예술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협력을 기울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안=이덕주 기자

방학 중 위기학생 지원 위한 '슬기로운 집콕생활키트' 배포

화순교육지원청 Wee센터 겨울방학 프로그램 운영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최원식)Wee센터에서는 18일부터 2월 26일까지 방학 중 복지사각지대 학생 및 위기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Wee센터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Wee센터 상담 대상학생 중 불안 및 우울 등의 심리적 취약학생과 고위험학생 상시 모니터링 목적으로 '슬기로운 집콕생활키트'를 마련하여 가정방문 상담을 실시한다.

키트는 생필품과 가정생활에 필요한 물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가정방문 상담 뿐 아니라 SNS를 이용한 학생상태 파악 및 비대면 상담을 적극 실시하여 학생과 안부를 묻고 일상생활을 공유하고자 한다.

또한 방학 중 위기학생 가정을 위한 가족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가정에 있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가족갈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학부모를 돕고자 한다.

자세한 내용은 화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hsed.jne.go.kr/>)와 Wee센터 대표전화 370-7190로 확인 할 수 있다.

화순=박순철 기자

삶을 가꾸는 교육,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